

■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자유분방한 느낌있어 신선”

◇조각가 장귀순씨=연보라색 스카프를 휘날리며 전시장에 나타난 조각가 장귀순씨(39). 스카프 하나만으로도 그의 패션은 단연 스타감이다. 그는 장르는 물론 경향까지 뛰어넘은 이번 전시가 자유분방한 느낌이 있어 재미있다고 소개한다.

“신선하고 참 좋네요. 학교나 장르, 출신을 벗어났다는 점도 자유로움을 느끼게 하구요? 거기다 구성원들의 참신함까지... 나무랄 데 없는 기회입니다.”

전시를 축하하던 그는 작가의 입장에서 ‘두께...전’이 해를 거듭할수록 여물어지는 것 같아 기분 좋다고 말한다.



“조 현씨와의 인연으로 결음”

◇서양화가 유철규씨=‘바람머리’가 특징인 서양화가 유철규씨(38). 그는 이날도 여전히 안정한 같은 ‘바람머리’를 휘날리며 예의 사람 좋은 웃음을 머금고 전시장에 들어선다.

불현듯 ‘바람머리’ 속에 들어있을 그의 생각이 궁금하다. 소감을 묻자 그저 “좋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말주변이 없다며 인터뷰는 극구 사양한다.

유씨가 이번 전시회에 온 것은 서양화가 조 현씨와의 인연 때문. 평소 절친한 사이라는 점이 작용했다. “현이 형이 전시한다니까 외본 거예요. 그뿐만 등을 함께 하는 사이거든요. 품파는 셈 쳐야 할까요. 별로 할말이 없네요.”



“시스템 취약 공공미술 발목”

◇서양화가 조병철씨=자신의 장르가 ‘회화’라고 거듭 강조했던 서양화가 조병철씨(41). 그는 이번 전시에 대해 많은 말을 토해냈다. 그 중 목소리에 가장 힘이 들어간 부분은 공공미술의 부재. 취약한 지역의 시스템이 공공미술의 살길을 막고 있다고 일갈한다.

“지역은 시스템이 취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공공미술의 자생력은 생각도 못하죠. 사설화랑에서 이런 기획을 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조씨는 영리 목적인 개인화랑에서 공공미술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고맙고 미안할 따름이라며 손사래를 친다.



“장르다양...개성만나는 공간”

◇큐레이터 신은경씨=지난해 가을 전주 서신갤러리 큐레이터로 온 신은경씨(30). 그는 이번 전시의 다양성에 무게를 둔다.

“작가에 비중을 두는 탓에 개성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봅니다. 또 한 자리에서 여러 장르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는 점도 관객들로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구요.”

개인전 기획은 많이 해봤지만, 그룹전은 처음이라는 신씨. 그는 작가를 모으는 과정도 쉽지 않았지만, 장르를 조율하는 것도 또 다른 어려움이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한다.

관객의 관심이 작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는 신씨. 많은 관람으로 작가들에게 힘을 실어주길 부탁한다.

/김영애기자 young@

사진+조각+민화+회화=

어떤 色?



회식자리에서 만난 '2004 두께를 위한 연습' 전 작가들

불이 무르익은 탓인지 전시도 풍성하다. 갤러리마다 각종 이름을 달고 꽃처럼 환한 액자들이 내걸린다. 전주 서신갤러리는 지난달의 대미를 장식하는 날, '2004 두께를 위한 연습' 전시의 막을 올렸다.

‘두께를 위한 연습’이라. ‘민화’가 쓰여진 공처럼 앞듯 알듯하면서도 막막하다. 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서신갤러리가 올들어 세 번째 마련한 이번 전시에는 사진+조각+민화+회화가 함께 장을 펼쳤다. 두께라는 면에서는 일리가 있을 밖에. 대신에 연습은? 그것도 나름대로 이해가 간다.

사진작가 김혜원씨와 조각가 노시은씨, 서양화 서희화·정경숙·조 현씨 등 5명이 ‘두께를 위한 연습’에 참가했다.

이들이 장을 펼치던 31일 오후 6시, 전주 서신갤러리는 100여명이 북적대 ‘콩나물 시루’를 방불케 했다. 예로부터 두께에 대한 연습은 시작된 것인가.



위에서부터 김혜원·노시은·서희화·정경숙·조현씨

청춘은 가볍고 즐겁다?

이번에 선정된 작가들은 대부분 40대. 올해 우리나라로 서른인 서희화씨를 빼고는 거의 불혹을 넘긴 세상을 알만한 나이이다. 그래서일까. 이들의 농익은 작품은 보는 이를 가볍고도 즐겁게 한다.

상업적인 풍경을 비틀어 풍자하는 김혜원의 사진이 그렇고, 인위적 개입을 줄이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노시은의 조각이 그렇고, 폐자재에 생명을 입히는 서희화의 민화가 그렇고, 그림과 온몸으로 소통하는 정경숙의 회화도 그렇고, 어두운 화면을 통해 희망을 꿈꾸는 조 현의 ‘개에 관한 습작’이 그렇다. 이미 청춘의 시절을 지나온 작가들. 그러나 이들의 작품엔 ‘가볍고도 즐거운 청춘’이 넘실거린다. 이를 둘러보는 이들은 콧노래라도 한 가락 부를 태세다. “청춘을 돌려다오~”

작가의 독특한 이력은 양념

이번에 선정된 작가들의 이력을 들춰보면 재미난 사실이 많다. 일단 눈에 띄는 사람이 사진작가 김혜원씨. 본래 국문학을 전공했던 그가 사진작가로 변신한 것은 아무래도 흔치 않은 일이다.

전북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김씨가 1997년 백제예술대 사진영상과에 입학했다가, 다시 중앙대 대학원 사진학과에 들어가 석사과정을 수료하기까지 그에게 인생은 어떤 의미였을까. ‘소비’와 ‘환경’을 방관할 수 없다는 스스로 사명감을 부여한 ‘집착’, 그 자체였다. 사진과의 만남은 그를 이런 집착에서 해방시켰다.

한국화를 전공했던 노시은씨가 조각가로 변신한 것도 관심거리. 이런 탓에 그의 작품엔 동양적인 선이 느껴지는 게 특징이다. 평면보다 입체작업이 자신에게 훨씬 맞는 것 같다는 노씨. 현재 경기도 양평에서 활동하며 조각가로 제2의 인생을 펼치고 있다.

다시 ‘두께’로 돌아가자

개성과 층이 다른 다섯 명의 작가들. 자신 안에서 쌓아온 ‘두께’의 한 컷을 관객과 공유하기 위해 서서히 물 위로 솟아 오른다. 이들의 향회는 9일까지 계속된다.

다시 ‘두께’로 돌아가보자. 작가들에게 ‘두께’는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다”는 대답은 여전히 유효한가?

박혜경 서신갤러리 관장은 “때론 찢기고 상처가 나기도 하겠지만, 그 상처를 통해 변화하면서 견고하고 단단하게 제대로 된 두께를 쌓아가는 과정”이라며 여전히 유효하다고 확신한다.

이제 관객이 대답할 순서. 시간 나는 대로 둘러보고 작가는 물론 자신에게도 진정 ‘두께’가 필요한지 자문해봐야 할 것 같다.

/김영애기자 young@

■ 5인 5색 작품들

자연속에 인공 시설물의 상업적 풍경 묘사



◇김혜원의 ‘커머셜 랜드스케이프’= 김혜원의 표현방식은 ‘상업’+‘풍경’. 한눈에 알 수 있는 풍경사진이지만, 자연이 아닌 인간의 소비모습에 카메라의 눈이 머물러 있다.

자연 속에 주인공인 들어앉은 골프장·수영장·스키장·눈썰매장·사격장·낚시터·자동차 극장 등 심지어 공연 무대·객석까지도 김씨의 시선에는 예외가 없다. 기록성을 무기로 한 그의 작품은 현장을 꼼꼼히 수집해나가면서도 단순 기록보다 미학적인 형식미를 드러낸다.

강가의 돌 버려진 쇳조각 생명으로 잉태



◇노시은의 ‘평화로움’=노시은의 조각은 다분히 시작이다. 강가의 돌이나 버려진 쇳조각들은 그를 만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 때론 새의 주둥이가 되기도 하고 몸체를 이루기도 한다. 자연 그 자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세련미를 느낄 수 있다 할까. 자연을 작품 속에 그대로 담아내는 것. 어느 장인의 솜씨가 이리 세련됐을까? 모르긴 해도 견줄 이가 없을 것이다.

플라스틱 폐자재와 민화의 멋드러진 만남



◇서희화의 ‘장생·천도’=플라스틱 폐자재가 민화(民畵)로? 아무리 뒤집어봐도 공식이 맞지 않는다. 하지만 멋드러지게 공식을 전복해내는 서희화. 그의 작품 속에는 늘 이런 ‘전복’이 공유했다.

섞지 않는 플라스틱의 성질을 살려 ‘장생(長生)’이라는 표제를 붙인 것만 봐도 그렇다. 플라스틱을 조통하는, 유쾌한 전복이지 않은가. 거기다 전통 민화까지 끌어들이는 그의 기발한 아이디어에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다.

붓끝에 무한한 자유 담아 캔버스외 분출



◇정경숙의 ‘bursting’=작가는 왜 ‘버스팅’이라는 제목을 붙였을까? 원색들이 충돌하면서 만들어내는 형상 속에 담겨 있을 텐데. 큰 붓에 물감을 듬뿍 묻히는 작가. 내적인 욕구를 신체행위에 담았고, 그래서야 그는 무한한 자유를 만났으리라.

뛰는 가슴으로 분출하려는 격렬함을 캔버스에 아낌없이 토해놓은 것인가. 캔버스 속의 자유분방한 선들이 살아서 생명을 뚝뚝 뿜군다.

어두운 색채 강렬하고 거친 감정으로 변이



◇조 현의 ‘개에 관한 습작’=이중섭의 소가 연상된다. 정면을 응시한 개의 표정에선 한치의 여유도 용납하지 않을 눈치다. 겹겹으로 표현한 마티에르, 어두운 색채는 강렬하고 거친 감정으로 변이된다. 작가에게 삶은 어떤 모습일까. 아름답고 이상적인 모습만은 아닌 모양이다. 희미해진 꿈을 되살리기 위해 아바 생떼를 쓰고 있는

지도 모를 일이다. 갑자기 작가는 왜 개에 천착하는가. 아리송한 일이다.

/김영애기자 young@

코아호텔에서 준비한 봄의 향연

뷔페식 야채 비빔밥 Festival



전주코아호텔 한식당(1층)에서 특별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에 식상한 직장인들을 위해 신선한 뷔페식 야채 비빔밥 페스티벌을 전주코아호텔 한식당에서 점심시간 특별메뉴로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개성과 식성에 맞게 원하시는 대로 골라서 드실 수 있는 뷔페식 야채 비빔밥 페스티벌, 건강과 함께 신맛한 음식을 전주코아호텔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 * 가격 : 6,000원
- * 시간 : 오전 11시 30분 ~ 오후 1시 30분
- * 날짜 : 2004년 3월 2일부터
- ※ 평일점심만 운영(토, 일, 공휴일 제외)

예 약 전 화 (063)281-1211~2



* 상기요금은 봉사료와 세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